

“나누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삶의 근간을 이루는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과 함께
현실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미래의 풍요로운 농어촌을 실현하는
길은 농어촌청소년에게 있습니다.

농어촌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나눔을 기다립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나눔은 몇천원, 몇만원의 금액이라도
소중히 생각하여 농어촌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부 후원금안내

기부 후원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비처리되며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 국민은행 814301-04-112714
(예금주_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문 의: 02) 6259-1232

이 메 일: newfry@fry.or.kr



2007년
하반기 호



농 푸 링 

green letters

FRY 캠프 진정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됩시다 | 기획특집 미래 빌게이츠를 꿈꾸는 농어촌청소년에게 희망을 |
참 아름다운 당신 김천 개령초등학교 '빛내 농악단' | 울타리 밖 학교 농어촌영어체험캠프 | 생활의 발견 청소년 신조어



행복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얼굴에 웃음을 자주 띠십시오.
팔을 높게 올리고 손뼉을 힘껏 치십시오.
힘차게 걷고 몸을 자주 흔드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연과 자주 접촉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떠올리고,
사랑할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좋은 한마디,
힘이 되는 글 하나
깊이 간직하십시오.

좋은 공기 속에서 살거나
좋은 물을 계속 마시면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듯이

좋은 생각,
행복한 느낌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글』 중에서

늘푸름



2007년 하반기호
green letters

Contents



06

- 02 보석같은 이 말
행복한 비밀의 한 가지
- 04 FRY 칼럼
진정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땀시다
- 06 기획특집 IT 농어촌마을 만들기
“미래 빌게이츠를 꿈꾸는 농어촌청소년에게 희망을”



14

- 11 참 아름다운 당신
김천 개령초등학교 '빛내 농악단'
- 14 울타리 밖 학교
농어촌 영어체험캠프
- 16 세상밖으로
- 농어촌 청소년 문예제전 대상 수상자 인터뷰
- 한민족 고구려 탐방기
- 한 중 청소년 교류
- 영농청소년 일본연수



22

- 22 문화기행
겨울 음식 준비하는 날
- 24 FRY 사업 소개
FRY 하반기 사업소개 및 관련 소식
- 28 2008년도 재단 사업 소개
- 30 생활의 발견
- 청소년 신조어
- 이색직업의 세계
- 32 문예제전 작품
문예제전 대상작 게재



30

늘푸름 2007년 하반기호 통권 31호
 발행인 송보경
 발행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편집인 서학봉
 편 집 유현정 (02-6259-1237 / homepage@fry.or.kr)
 주 소 135-79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15층
 전화 02)6259-1232~7, 팩스 02)6259-1238
 홈페이지 www.fry.or.kr, 이메일 newfry@fry.or.kr
 제 작 (주)일등선전 02-539-3989

<늘푸름>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게재된 글과 사진은 재단과 작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뛰시다”



서학봉_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

2007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2008년을 맞이하면서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시간적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재단 사무총장으로서 농어촌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책임으로 맞이하는 무자년 새해는 저에게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농어촌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밤에 부단한 노력으로 징표를 준비해야 하듯이 재단은 그간 농어촌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을 펼쳐온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 시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여 농어촌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 설립 이래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첫째, 자율·창의·다양성 등으로 대표되는 청소년문화와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사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그간 재단 사업에 참가한 수혜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청소년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관계형성, 재단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재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확고한 지지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설립 15년을 맞이하는 재단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육 마련과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하겠습니다.

이렇듯 새해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농어촌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의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 더욱 깊고 폭넓게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 소속원들의 부단한 자기개발과 함께 수혜자 여러분들에게도 소속감을 가지고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소년단체의 실무책임자로서 “청소년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표현에 깊은 공감을 가집니다. 하나 요즘 청소년들은 입시 교육으로 밤낮없이 학업에 지쳐있으며 더욱이 농어촌청소년은 경제·문화적 소외 등의 이중고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값진 노력을 통해 진정한 시대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특히 농어촌청소년이 이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신의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재단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도 시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재단 또한 그런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여 희망이 가득 찬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재도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미래의 빌게이츠를 꿈꾸는 농어촌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글_ 이대영(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준다. 포털 검색창에 여러 궁금한 점을 검색하면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은행업무도 인터넷뱅킹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해결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보화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니다.

도시와 비교해서 초고속인터넷망, PC보급 등 정보화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은 정보화의 혜택에서 소외를 받으며 그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의 정보격차 해소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농어촌청소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화 산업에 일찍 눈을 떠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빌게이츠처럼 그들도 컴퓨터로 자신의 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성공사례를 살펴본다.

정보격차 해소 위해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추진

농어촌지역의 정보화는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지역과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영위되는 농어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시지역과는 정보화의 내용이나 접근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정보는 농어촌 생활의 모든 측면, 예를 들면, 교육, 의료, 기업 활동, 여가 등에서 필요한 요소다. 이들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이용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은 낙후된 환경으로 인한 초고속통신망의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보접근기회를 어렵게 하며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지역으로의 과도한 정보 집중은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된 지역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보화를 활용한 농어촌지역 개발과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등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가구별 PC 보급, 마을정보센터 구축 등 정보접근환경을 개선하여 인터넷사용과 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전자상거래·체험관광 등 소득향상을 위한 정보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마을에 PC보급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 말까지 338개 정보화마을이 연도별로 조성됐고 선정된 지역은 크게 7개 사업 부분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정보화마을 및 가구에 초고속인터넷(ADSL)을 설치하여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둘째,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PC(마을별 약 11대), 근거리통신망, 빔 프로젝트 등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대상 정보화교육, 회의 및 영화감상 등의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한다.

셋째, 가구별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PC 보급률이 대상마을 가구수 대비 70%이상이 되도록 6차 사업까지 총2만5천여 대의 PC를 가구에 보급하여 주민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지역 이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정보이용환경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정보콘텐츠 개발은 중앙의 대표 홈페이지(www.invil.org)와 마을별 홈페이지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www.invil.com), 체험관광(tour.invil.org) 등의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소득증대 및 마을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정보화마을』이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각 지역 마을 주민 및 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생활화와 정보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본이 되는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PC활용교육, 정보화마인드 교육 및 콘텐츠이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각 정보화마을이 자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마을에 1인 이상의 정보화지도자를 선정하여 핵심적인

‘e-leader’를 육성하고, 15명 내외의 주민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정보센터 관리, 마을 홈페이지 운영, 상거래 판매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CI(Corporate Identity : 로고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홍보 간판, 상품박스 등에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 제고로 정보화마을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2007년에는 삼척시 ‘너와 정보화마을’에 유 빌리지(u-village)를 시범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 빌리지는 모바일 PC, GPS(또는 RFID), 무선인터넷 등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마을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기반이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미래 발전 모델로 정보화마을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적용하여 마을 및 체험관광 목록을 보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보접근 개선으로 농어촌지역 소득향상에 기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인터넷이용률과 PC 보급률을 향상시켜 도



다. 초기 운영에 비하여 사이트 접속자수, 상거래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체 마을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앙시스템과 각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마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 관광 등의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아직 초기단계이나 매년 40~50% 늘어나는 등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 오프라인상의 거래실적은 온라인 판매액 보다 5배(167억 원, '06.12월)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도 2006년 30억 원에서 2007년에는 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외서도 인정한 정보화마을 성공사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나라를 정보화 강국으로서 IT를 활용한 농어촌 개발모델로 정착시켰다. 또한 농어민도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시대적인 동질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했다. 이는 해마다 마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산업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발전과 자립운영을 위해 빠져서는 안 될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의 수익 모델이 전문 업체 운영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체험관광형 '삼척 너와마을(neowa.invil.org)'은 정보화마을로 선정

되기 전에는 오지마을이었으나, 선정 이후 가구별로 농외소득이 대폭 증가되어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었다. 너와마을은 2002년부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연 2만5천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2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와 연계해 전자상거래, 너와펜션 및 마을캠프 운영을 통한 수익도 발생시켜서 2003년도에 650만원이었던 소득이 2006년도에는 1,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장 못사는 마을에서 부러움의 대상인 마을로 탈바꿈했고,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제고시키게 되었다. 더 나아가 주민의 마인드 변화로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모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상거래형 성공마을인 경북 봉화 '춘양목숨이마을(cs.invil.org)'의 성공요인은 철저한 상품 및 고객관리로 이끌어낸 고객 만족 극대화였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동 브랜드 및 포장재 제작, 공동생산 공동정산 등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며, 갖가지 이벤트로 고객에게 상품이 아닌 따뜻함과 정겨움을 전달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매출이 4백만 원('02.9~'03.11)에서 4억9천('03.12~'05.7)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마을 판매 수익금(5%)을 마을정보센터 이용기금으로 조성하고, 마을 홈페이지 게시판 및 동호회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복원되는 등 디지털(정보화)이란 새로운 트렌드를 이용하여 오지마을이란 꼬리표를 떼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본보기가 되는 성공사례로 알려지며 세계 여러 국가에도 소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70개국에서 1,500여명이 고위 공무원이 다녀가는 등 외국인들의 견학코스로 마을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에만 몽골(5월), 아프리카공무원(5월), 아세안농업공무원(8월), 탄자니아(9월), 세네갈(11월) 등의 공무원이 방문했고, 중국 심양(5월)·북경(8월), 베트남(11월)에서 정보화마을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4년까지 전국 800여개 정보화마을 조성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복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접근 환경의 개선, 정보생활화를 통한 주민생활의 변화, 마을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조성과 함께 매년 운영성과 평가, 컨설팅 실시를 통해 운영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학·민 등 관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형식으로 주민 생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지원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상업·관광업 등 산업간 또는 농어촌 사업과 관련된 부처간 사업을

〈표2 정보화마을 조성계획('08~'14)〉

구 분	총계	조성원료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01~'07년	'08~'14년							
마을수	787개	338개	449개	29개	70개	70개	70개	70개	70개	70개
중앙조성	484개	261개	223개	13개	35개	35개	35개	35개	35개	35개
지방조성	303개	77개	226개	16개	35개	35개	35개	35개	35개	35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07년도 6차 정보화마을까지 338개가 조성되고, 앞으로 2014년까지 전국에 800여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표2 참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와 마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국비로 부담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예산을 자치단체와 마을과의 분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사업의 제도적인 근거마련을 위하여 가칭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빌게이츠의 꿈을 꾸게 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지역 정보화마을 사업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미래 지역 사회 일꾼으로 성장할 농어촌 청소년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방학 특강 프로그램 등으로 운용되는 지역 청소년들 대상 IT방학 특강과 학업에 도움을 주는 온라인 강좌들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IT에 대한 흥미와 함께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못 받는 청소년 공부방이나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자활 지원관 등을 골라 PC나 각종 기기를 지원하는 KTF의 IT 비기 공부방과 같은 사례 또한 정부의 정보화 마을 추진 사업과 함께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위한 IT지원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어 앞으로도 농어촌정보화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시수준의 정보이용이 정착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시간도 대도시 주민 이용시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 홈페이지(www.invil.org)와 338개 마을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다.〈표1 참조〉

〈표1 PC 보급률 및 인터넷 이용률 비교〉

구 분	정보화마을 평균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비 고
	조성전	조성후			
PC 보유률	21.0%	66.5%	79.6%	50.2%	2006년
인터넷 이용률	8.8%	64.5%	74.8%	29.4%	2006년

정보화마을 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인빌쇼핑(www.invil.com) 및 체험관광(tour.invol.com), 정보화마을의 주민이 기자(인빌기자)가 되어 쓴 지역 및 마을기사를 통해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기반이 되고 있는 인빌뉴스(news.invil.org), 주민이 개설한 동호회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커뮤니티(community.invil.org) 등이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

“IT를 함께 나눠요” 농어촌 정보화에 앞장서는 IT서포터즈



KT의 IT희망프로젝트 모두의 IT를 위해 IT서포터즈가 찾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눌 수 있기에 행복한 자신인 나는 IT서포터즈입니다

IT를 나눠요
Life is wonderfull KT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지원 사업은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중에서 KT의 ‘IT 서포터즈’는 농어촌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정보화 소외계층이 봉사활동의 혜택을 입었다. ‘IT서비스 기부’라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든 IT서포터즈의 활동을 소개한다.

농어촌주민에게 컴퓨터 교육을 통한 봉사활동 전개
IT서포터즈는 컴퓨터와 인터넷 전문지식을 갖춘 KT 직원들 가운데 400명의 IT 전문가를 선발, 농어촌지역에서 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등 주민정보화 교육을 벌이는 봉사활동이다. 지난 2월 출범하여 농어촌지역에서 IT정보격차해소에 큰 도움을 주며 IT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컴퓨터 사용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봉사활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IT 활용증진 사업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민원서류 발급,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인터넷 예약을 포함하여 디지털앨범 제작, UCC, 블로그, 메신저 서비스 활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컴퓨터뿐만 아니라 MP3, PMP, 디지털카메라, DMB, 휴대폰 등 각종 IT기기를 편리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IT 역량배양 사업이다. PC,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눈높이 교육, 계층별 필요정보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주로 역량이 미숙한 소외계층을 타겟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IT 성능진단 사업으로, IT기기의 성능저하 현상을 진단하여 운용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원활동이다. 각종 악성코드와 바이러스 치료, 제거, 불필요한 파일 삭제, 인터넷 환경설정, PC최적화 작업을 비롯하여, 영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는 트래픽, 용량, 속도, 인터넷 보안, 품질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IT서포터즈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컴퓨터 활용교육 3만회를 실시하며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IT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IT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들과의 만남에 주력하여 ‘IT서비스 기부’라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국민의 정보화 이용과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IT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첨병노릇을 하고있다. IT서포터즈에 대한 신청은 전화(1577-0080)와 인터넷 홈페이지(www.it0080.com)를 통해 접수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 아름다운 당신 김천 빛내 농악단



김천의 자랑 개령초교

‘빛내 농악단’ 우리나라 풍물놀이 첫 세계인에게 뽐내



경상북도 김천지역의 한 시골 초등학교 농악단이 각종 풍물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김천 개령초등학교 빛내농악단으로 이들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8호인 빛내농악의 맥을 이어받아 우수한 기량을 자랑하고 있다.



| 전국 풍물대회 화려한 수상 경력 뽐내 |

김천시 개령초등학교 빛내 농악단은 이 지역의 큰 자랑이다. 지난 2001년에 경상북도 무형문화제 제8호인 빛내농악의 전수학교로 지정받아 그 동안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빛내 농악단은 지난 10월 20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실시된 제 16회 전국 청소년 문화 큰잔치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해 역동적인 동작과 신명나는 가락을 선보이며 많은 관중으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으며 경연을 펼친 끝에 대회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10월 10일에 개최된 제 15회 김천예술제 국악경연 대회에서도 금상을, 지난 9월 5일에 있었던 제35회 화랑문화제에서 음악부문(사물놀이) 금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개최된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개령초교 빛내 농악단의 명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16일 한국민속촌에서 열린 제9회 전국 농악 명인 경연대회에서 6학년인 김광수, 하상혁 등 2명의 어린이가 농악 명인으로 뽑히며 장려상과 인기상에 각각 선정됐다. 특히 지난 5월 26일에 개최된 전국소년체전 개막식에서 개령초교 빛내 농악단이 초청을 받아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이밖에도 2006년 대전한밭풍물제에서 장원상, 2004년 전국청소년문화큰잔치에서 우수상, 2003년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에서 은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빛내 농악단의 사물놀이는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청공연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일본 한민족통예술회합회의 초청공연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고 2006년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개최된 '2006 국제 어린이 축제'에 외국 공연팀으로 초청받아 한국 농악의 아름다움을 뽐냈다. 화려하고 세밀한 사물놀이에 관중들은 감탄사를 쏟아냈고 600여 명의 관중으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다.

| 해외 공연에서도 인기 독차지 |

농악단을 지도하는 박정철 선생은 "전국대회를 매년 휩쓸 정도의 실력으로 공연을 선보여 큰 환호와 갈채를 받고 있으며 해외 공연에서도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청소년국악단 단장을 맡은 안광태(57) 개령초교 교장도 "개령초등학교는 전교생이 80여 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능숙하게 우리 풍물을 다룰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고 극찬했다.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농악단은 지난 2001년에 창단됐다. 이들은 수업외 재량 활동시간 등을 이용, 지도교사와 함께 일주일에 4시간가량 꾸준히 연습해오면서 실력을 쌓고 있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농악이 어려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신이 나고 스트레스도 풀리며 운동효과도 상당하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배울 것을 권유할 정도로 사물놀이에 푹 빠졌다. 방학기간에는 빛내농악 전수관에서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빛내농악의 맥을 이어갈 빛내농악 전수관은 2003년 11월 5일 개관하여 개령초교 농악단을 비롯해 김천지역에서 풍물을 배우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전수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수관은 전통한식 기와건물과 야외공연장으로 나뉘져 있으며 전시실·연습실·기물보관실·숙소 등의 시설을 갖춰놓았다.

전시실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사물놀이 악기와 의상 등을 전시해 각 지역 사물놀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연습실과 숙소 등 시설은 빛내농악에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박정철 지도교사는 "앞으로 방학동안 빛내농악 전수관을 이용한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더욱 실력을 닦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천 빛내 농악 유래와 소개 |

빛내농악은 김천 빛내마을에서 이어져오는 전형적인 풍물굿이다. 한국 사물놀이의 대부분이 '농사굿'인데 비해 '군사굿'으로 이어져 오는 특징이 있다.

유래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한의 감문국에는 잦은 수해를 면하려는 풍년제가 마을굿 형태로 펼쳐졌다.

이후 풍물놀이가 이어지는데 이 풍물놀이에서 발전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 빛내농악이다. 질굿·문굿·마당굿·지신굿 등 모두 12마당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락은 긴 것과 짧은 것의 119 마치로 세분된다.

빛내농악 가락을 행사에 맞게 구성한 농악놀이는 지역문화를 지키고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뿌리로 김천 빛내농악의 전승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빛내농악의 고장인 개령면의 아낌없는 지원,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제 빛내 농악은 지역의 한마당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그동안 빛내농악은 1961년부터 전국민속예술큐연대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각종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 김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등 그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 빛내농악의 12마당

1. 골매기굿/질굿

골매기굿은 쾩과리에 맞추어 모든 풍물꾼이 춤을 추며 행진할 때 치는 가락으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가가호호 지신뵙기를 하는 뜻도 된다.

2. 문굿

문굿은 풍물꾼들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격으로 치는 가락이며, 정적궁이는 원진을 갖춘 판을 벌려서 놀이를 준비하는 곳이다.

3. 마당굿

마당굿은 빠른 가락으로 상쇠와 종쇠의 가락에 따라 전 풍물꾼이 놀이훈련에 들어가는데, 상쇠와 종쇠가 서로 이동하면서 전 대원을 훈련시킨다.

4. 영풍굿

영풍굿은 병사들의 훈련을 의미하는데 쇠잡이들이 원진안에서 놀다 원의 선두로 들어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앞으로도 가고 반대방향으로도 가며 또 원래위치로 돌아가는 놀이를 한다.

5. 판안다드레기

판안다드레기는 일명 소리굿으로 상쇠와 종쇠가 소리에 맞추어 쇠가락을 치며, 모든 풍물꾼들은 가락에 맞추어 자기 악기와 장비가 이상없음을 과시하며 신나게 뛰여 논다.

6. 기러기굿

기러기굿은 풍물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풍물꾼들이 옆으로 뛰여 기러기 모양 팔을 벌려 덩실덩실 춤을 춘다.

7. 허허굿

허허굿은 상쇠가 가락을 치다가 '허허허'하며 소리를 하면 모든 풍물꾼들이 '허허허'하며 대답을 하는데, 이는 자기 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상쇠가 끝난 후 종쇠가 반복하기도 한다.

8. 쌍둥이굿

쌍둥이굿은 풍물꾼들이 큰 원을 그리며 놀다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두명씩 짝을 지어 작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9. 판굿

판굿은 풍물꾼들이 양쪽으로 갈라선 굿판 가운데서 쇠놀이, 북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순으로 노는 것이다.

10. 영산다드레기

영산다드레기는 빛내진굿 중 어려운 가락과 놀이로 격렬한 전투장면을 나타낸다. 악기와 소고가 두패로 나뉘어 밀고 당기며 전쟁을 나타내는 격렬한 놀이를 한다.

11. 진굿

진굿은 상쇠와 종쇠가 두패로 나누어 진을 치고 노는데, 이는 격전을 벌여 적을 포위성멸하는 것을 나타낸다. 상쇠가 진을 풀면 모든 풍물꾼들은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을 기뻐하며 한데 어우러져 흥을 돋구며 춤을 춘다.

12. 상사굿

상사굿은 놀이(전쟁)가 끝나고 각기 헤어져 흥겨운 마음으로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느린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생각해요!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영어체험캠프'

겨울방학을 앞두고 자녀를 영어캠프에 보내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영어체험캠프가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그 비용부담도 많아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교육은 사각지대였다. 영어체험 기회의 지역적 편차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비용이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영어체험캠프를 농어촌지역에 잇따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에게 영어학습을 받을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각 지자체가 관내에 마련한 영어학습체험장을 소개한다.

무안군 무안영어타운

전라남도 무안군은 글로벌 시대에 군민에게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무안영어타운을 개원했다. 무안 영어타운은 시설규모로는 면적이 270㎡로 교실 3칸 크기이며 출입국 심사 및 레스토랑, 백화점 등 총 8개실 영어체험 코너와 멀티학습실, 교사 연구실을 설치했다.

영어타운 운영 지도강사는 미국 미네소타 출신 원어민보조교사 1명, 내국인 영어 전공 강사2명, 교과 전담교사 1명 등 총 4명으로 다양한 체험코너 시설과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기 중에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을, 방학 기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영어지도 교사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과 함께하는 연찬회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지역민과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영어체험 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횡성군 영어체험학교

강원도 횡성군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영어체험교육이 부족한 농촌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횡성 성남초교에 영어체험학교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영어체험학교에는 입국심사대를 비롯해 비행기 기내 체험, 시청각실,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매표소, 병원·약국, 분실물센터 등이 설치되었으며 성남초교를 비롯한 횡성지역내 각급 학교 학생들은 이곳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직접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어학능력을 키우게 된다.

군과 교육청은 특히 어린이들은 물론 공무원과 일반 주민들의 회화 능력 확대를 위해 카페 및 레스토랑, 백화점 등의 코너가 별도로 마련했으며 원어민 교사 3명을 비롯하여, 한국인 강사 1명 등 모두 4명의 전문 강사진을 배치했다.

충북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충북도교육청 산하 학생외국어교육원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 기본과정반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 기본과정반은 외국어교육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4박 5일동안 합숙과정으로 운영되며, 2008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1기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모두 30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1기당 인원은 남녀 학생 45명씩 90명이다. 선정 기준은 해외 어학연수나 도내 연수기관에서 4박 5일 이상 참가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



육소의 계층 학생 10%를 우선 선발한다. 경비는 식비와 간식비를 제외하고 모두 무료이며 입소 기간 동안 영어로만 생활하고 주로 상황체험 학습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된다.

봉화군 농어촌학생 영어체험캠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겨울방학동안 4박5일간 농어촌학생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학생 영어체험캠프는 봉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1억9천2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봉화에 주소를 둔 봉화군 소재 초(5~6학년),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4만 원의 이용료만 부담하면 4박5일 영어캠프에 참가하여 원어민교수와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춘천시 원어민 외국어캠프

강원도 춘천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외국어 캠프를 운영한다. 외국어 캠프는 내년 1월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춘천YMCA에서 위탁 운영한다.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1월7~11일, 1월14~18일, 1월21~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원어민 교사가 참가하는 외국어 캠프를 실시한다.

또 춘천YMCA는 2008년 1월4~6일, 1월11~13일 두 차례 영어 캠프를 연다. 모집인원은 300여 명, 참가비는 2만 원이다.



“대학 통학형 영어캠프 인기”

지역 대학들이 방학 동안 운영하는 통학형 영어캠프도 인기를 끌고 있다. 통학형 캠프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로 등·하교 하면서 원어민 강사들과 캠퍼스 내에서 자유롭게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계명대와 영남대 통학형 캠프가 인기가 높다. 두 캠프 모두 초·중학생 대상으로 2008년 1월7일 문을 열어 4주 동안 주3일(월수금/화목토) 하루 7시간씩 원어민 교사 수업을 진행한다. 계명대의 경우 셔틀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100% 영어 환경이 시작된다. 작문과 말하기, 영어잡지와 스토리북을 활용한 단어 수업, 문법과 독해 훈련, 영어식 사고력과 표현력 습득 등을 학습한다. 또한 벵글시장, 영자신문 만들기, 3분 스피치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며 반별로 영어 연극과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발표대회를 갖는다.

2004년부터 시작된 영남대 캠프는 이번이 8회째. 4시간의 정규수업과 퍼포먼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룹 프로젝트를 통한 협동심 배양, 영어 일기 쓰기와 예습 복습을 통한 학습 효율 향상 등이 특징이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글을 써야 진실되고 꾸밈없는 문장이 나와”

글_ 이재일



제7회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에서 영예의 대상(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김윤명 학생은 현재 부산 기장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다. 대상을 수상한 그녀의 작품은 수필부문으로 평소 학교에 대한 생각을 비판적인 문체로 잘 담아냈다. 산문을 대표하는 수필은 자신의 경험이나 스스로 느끼고 깨우친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문학이다. 김윤명 학생의 작품(비밀번호)에도 그녀가 평소 생활 속에서 체험한 삶의 흔적들이 묻어난다.

학교라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문학적으로 비판

작품 내용은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순으로 매겨 우등생과 열등생을 가르치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 수필은 학교 안에 갇혀 살면서 자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교육제도에서 당하는 차별과 서러움에 대한 호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청소년으로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학교뿐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말했어요. 학교를 바라보는 반항적인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실(교육제도)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이번 문예제전의 작품을 평가한 민족문학작가회의 심사위원들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간결한 메시지로 잘 표현했다”고 매우 극찬했다. 이런 뛰어난 글짓기 능력은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두각을 보이면서 여러 교내 백일장과 문예제전에서 각종 상을 휩쓸면서 인정받았다. 그 동안 수상 경력을 보면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상 및 차하상 수상, 교외상으로는 통일글짓기 공모전 은상(제8회, 9회 연속),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부산광역시 의장상, 가야문화축제 백일장 고등부 산문 참방, 고정희 문학상에서 장려상 등을 받았다.

그녀가 글짓기에 남다른 소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읽기를 좋아해서 취미도 자연스레 독서와 습작이 되었던 것. “그냥 책을 읽다가 글을 한 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시간 날 때마다 습작을 했어요. 그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글짓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난 천재적인 재능이 없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글짓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장래 소망은 노벨문학상에 도전하는 일

장래희망은 작가가 되는 게 꿈이란다. 특히 아동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에세이를 쓰고 싶다고 전했다. 그래서 대학진학도 일찌감치 문예창작학과로 결심하여 올 여름 원광대학교 한국어문학부에 수시 지원해 당당히 합격했다. 내년 봄이면 '08학번 새내기 대학생이 되는 그녀는 원대한 포부와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장래의 큰 소망은 노벨문학상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은 바람은 제가 쓰는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 글을 통해 친구처럼 소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여고생은 사회전반적인 일에 두루두루 알고 싶어하고 관심도 지대하다.

“작가가 되기 위해선 여러 방면으로 지식이 많아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심리학을 따로 배우고 싶어요.”

문득 그녀의 글쓰기가 궁금했다.

“글은 정말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머리로 문장을 화려하게 꾸며 적다보니 글짓기 대회에 나가면 매번 떨어졌죠. 더구나 문체가 너무 딱딱해 보였고요. 그 때 경험을 교훈삼아 지금은 마음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글짓기를 잘 하기위한 노하우 뿐만 아니라 본인처럼 작가를 꿈꾸는 농어촌청소년 후배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글을 쓰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습작이라든지 필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무엇보다 항상 진실되고 꾸밈없이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후배님들과 제가 우리나라의 문학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바람처럼 재능있는 농어촌청소년출신의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원한다.





우리나라 역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김진현_ 전북 부안여자고등학교 2학년

힘들고 어렵게 오른 999개의 계단

입국수속을 모두 마치고 우리는 제일 먼저 오녀산성에 갔다. 아주 힘들게 999개의 계단을 올라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환상적이었다. 아직도 그때 그 풍경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다음날은 '광개토태왕비', '광개토태왕릉', '장군총' 등 내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유적들을 답사했다. 특히 나는 이 유적지들을 살펴본 소감을 우리 고장의 신문에 기사로 싣기로 되어있어서 더 관심 있게 듣고, 보았다. 국사책이나 신문, 뉴스를 통해서만 보았던 유적들을 막상 눈앞에서 보니 처음에는 실감이 나질 않았다. 유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플라스틱 관에 싸여져 있어 비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게 제일 아쉬웠다.

광개토태왕릉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광개토태왕릉이 있었는데 그 크기와 규모에 나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광개토태왕릉을 보고 있노라니 작년 이맘때쯤 갔던 경주에서 본 여러 신라왕들의 무덤이 생각났다. 작년에는 그 무덤을 보고 놀랐었는데, 광개토태왕릉은 그것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여러 왕들의 묘를 보니 왕릉의 크기는 그 왕이 쌓은 업적에 비례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난 광개토태왕릉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고구려 제19대 광개토태왕의 능엄한 기상을 느껴 보았다. 다음으로 간 장군총을 눈앞에서 처음 보는 순간 서길수 교수님이 지은 책의 겉표지 그림이 생각났다. 너무 반가웠고,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4일째 답사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우리가 답사하기로 되어있던 유적들을 모두 살펴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침 일찍 다녀온 운봉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운봉댐 바로 아래 내려다보이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신기했다. 비록 개미 크기로 보였지만 당장이라도 뛰어 내려가 우리들과 한 핏줄인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루 빨리 북한과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여 가보고 싶었다.

기대와 호기심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2007 한민족 해외문화권 탐방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서울에 가는 3시간 동안 '내가 정말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최초로 쌓은 오녀산성에 가보게 되나?', '백두산의 천지는 실제로 얼마나 크고 멋있을까?', '광개토태왕릉비는 책에서 본 것처럼 클까?'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

우리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중국으로 떠나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할 국제 청소년센터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처음 만난 친구, 동생들과 조를 짜서 친교를 나누었고, 중국어 기초 회화도 배웠다. 난생 처음 배운 중국어지만 배우면 배우수록 재미있었고 더 배우고 싶었다. 또,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한 후 역사에 대해 많은 열정과 지식을 갖춘 김종은 선생님의 강의도 들었다. 나는 새로이 알게 된 역사에 놀랐고, 선생님의 해박하신 지식에 한 번 더 놀랐다. 오랜 시간동안 강의를 진행되었지만 누구하나 떠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흥미로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국제공항으로 가서 심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심양공항에 도착했다. 드디어 중국에 첫 발을 딛게 된 것이다. 착륙하기 전 비행기의 차창 너머로 보이는 중국의 풍경에 깜짝 놀랐다. 집이며 논이며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전혀 이국적이지 않고 매우 친근했다.



천지를 본 소감을 말해주기로 한 아빠와의 약속

5일째 되는 날에는 드디어 백두산에 올랐다. 산 정상까지 거의 대부분을 차를 타고 올라가서 내린 후 1,2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랐다. 오녀산성의 계단 높이에 비해서 훨씬 낮아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천지를 꼭 보고서 소감을 말해주기로 했던 아빠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통하게도 날씨로 인해서 천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눈앞에는 뿌연 안개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실망스러웠다. 아름다운 천지의 모습을 찍어 친구들과 가족에게 설명해주면서 자랑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어 뿌연 안개라도 찍어왔다. 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다시 한 번 백두산 등반에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6일차에는 용정으로 이동해서 해란강을 보고 대성중학교에 갔다. 대성중학교 안에서 그곳의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여러 사진과 자료를 보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여느 박물관처럼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한 여러 열사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죽음을 앞에 두고 언제나 담담했던 그들의 모습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운봉길 의사가 흰 피로 눈을 둘러매고 총살당하는 사진을 볼 때 내 가슴속 깊은 한 구석에서 뭔가 솟구쳐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대성 중학교를 답사하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열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점심을 먹고 나서 발해의 유적인 돈화 오동성 24개돌을 답사하러 갔다. 답사를 하러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우리를 안내했던 조선족 가이드 아저씨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따라가 보니

유적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 24개돌이 있었다. 이 유적들 위에는 공사를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도구 판자 같은 것들이 맘대로 널려있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장면이었다. 광개토태왕릉비 처럼 투명 플라스틱관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에는 용담산성과 동단산성 그리고 모아산에 갔다. 답사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와 닿았다. 어느덧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도 할 수 있는 7박 8일의 시간이 모두 지났다. 이 기간 동안 학교 보충 수업을 받으며 학원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난 이 답사를 선택했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머리로 쌓은 지식도 있었지만 좀처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했고, 많이 느끼고 생각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경험이라고 누가 말했듯이 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다. 답사를 할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7박 8일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며 감상문을 쓰면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해 보니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또,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참가할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나라 역사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다.

생애 처음으로 가 본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배우고 싶은 시간들



신진영_충북 음성대소중학교 3학년

‘우와! 정말 대단해!’ 생애 처음으로 중국에 가서 느낀 소감이다. 중국의 주요 시내에는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중국 친구 리우이저를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열심히 인사말을 외었다. 드디어 저 멀리 호텔 앞에서 손을 열심히 흔들고 있는 중국 친구들이 보였다. 정말 몇 년을 알고 지낸 친구처럼 반가웠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리우이저 앞에 섰을 때는 준비했던 인사말을 한 번의 오랜 포옹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이런 교류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내가 농촌에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중한 친구를 만날 수 없었다는 걸 생각하니 농촌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신성한 내가 뿌듯했다.

내 친구가 사는 가까운 나라, 중국

그리고 이렇게 농어촌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 조금 아쉬웠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환영식 내내 우리는 그동안 궁극했던 이야기들을 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중국 청소년들은 참 적극적이고, 이런 점은 우리나라보다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다. 특히 중국에서 사귀 친구 리우이저와 함께 보낸 3일은 내겐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다. 물러장에서 그가 상품으로 탄 곶인형을 나에게 준 일, 귀신의 집에서 리우이저와 함께했던 시간은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둘째 날 먹은 아침식사도 인해 배탈이 났을 때, 리우이저가 나를 크게 걱정하며 함께 병원에 갔던 일이다. 그땐 정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중국 친구들과 함께 3일을 보내고 헤어지는 날 약속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지만 훗날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흘린 기쁨의 눈물이라 생각하며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버스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아프다고 울었을 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중국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리고 훗날 또 다시 만나다

면 그날의 일을 기억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큰 탓에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내게 노산으로 가는 길은 작별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올라 다시 케이블카로 갈아탔다. 정상을 향해 천천히 오르는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주변 경치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리고 케이블카에서 내려 다시 1시간 가까이 계단을 올라 산 정상에 도착하니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구름에 쌓여 주변이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따금 구름이 걷힐 때마다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동해의 노산만 못하다’는 중국의 옛 속담처럼 정도에 와서 노산에 가지 않으면 정도에 왔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치가 뛰어났다.

나중에 다시 와보고 싶은 중국

이렇게 중국에서의 기억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그리운 내 친구가 살고 있는 곳, 다시 한 번 꼭 와야 할 곳, 한국 사람이 많이 살아 한국음식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곳. 특히 외국에서 한국어를 접하는 기분은 정말 자랑스러웠다. 중국의 수도 북경을 방문한 것도 잊지 못한다. 그 동안 TV뉴스에서 본 중국의 모습은 항상 천안문과 자금성이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정말 거대하고 웅장했다. 또 만리장성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고 오르는 기분은 최고였다. 이번 한중 청소년 교류 체험을 통해 중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나에게 중국은 낯선 나라가 아닌 보고 싶은 친구가 살고 있는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 중국의 모습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다. 나중에 중국을 다시 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한 이 곳에서 더 많은 기억과 추억을 가슴에 안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훌륭한 디딤돌이 되어준 영농청소년 일본연수



임선주_전남 해남군(농업)

사촌언니의 전화 한통에 참가하게 된 영농청소년 일본연수. 뒤늦게 농업을 하겠다고 무작정 한국농업대학에 입학하고 조금씩 농업이 무엇인지 배우며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내가 농업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끈끈한 ‘정(情)’ 때문이다. 자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따뜻한 정과 푸근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곳 일본 농가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홈스테이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골과 비슷한 ‘정(情)’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

홈스테이 생활의 불편한 점은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의 작은 아가씨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을 하면 일본의 아저씨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답을 해주셨다. 생각할수록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가고 가면서도 짐작컨대 70% 이상은 서로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내 표정을 보면서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으신 아저씨의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쉽게 설명 해주시려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저씨는 과밭에서 제조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차를 타고 나가시더니 어느새 일본식 호미를 사다주시며 선물을 건넸다. 촌부의 맘이 모두 이럴까? ‘기미에’라는 아저씨의 딸은 그녀의 아버지가 매우 엄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님이라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귀띔했다. 엄하지만 속정 깊은 이들이 나는 너무 좋다. 이 집에 사는 할머니도 우리네 할머니들과 너무도 닮아 푸근하게 느껴졌다. 우리에게 3천 엔을 용돈이라며 건네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한 문장의 대화를 위해 가이드 책자를 수십 번도 더 뒤적이며서도 좋았다. 우수농작물제도(GAP) 안전교육을 다녀오신 아저씨는, 내게 교육책자를 주시며 공부해서 읽어보란다. 순간처럼 빠르게 지나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나던 날

아침,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드링크 건강음료를 챙겨주셨고 버스에서 흔들리는 손은 어느덧 눈가를 훔쳤다.

자연과 함께하는 농부로 살고 파

이번 연수가 너무도 짧게 느껴진다. 재단 관계자 분께서 “보고자 하면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보다 나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절실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내가 농업현장에서 생업을 목표로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이곳에 와 보고 싶다. 이마무라 교수님이 말한 “1×2×3=6”이라는 농업의 6차 산업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다. 또 “땅과 물은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닌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도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보다 앞선 농업기술을 가진 일본에 와서 우리나라 농업기술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씩 분명히 느끼고 알아 갈 것 같다. 내가 이곳에 와서 기술을 익히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웃나라 일본 또한 우리와 비슷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알았다. 농업소득이 아직은 불안하여 대부분 부업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면서 부업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이다. 같거나 비슷한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어 더 절실하게 농업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연수는 두고두고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경험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내가 앞으로 농업을 해 나감에 있어 훌륭한 디딤돌이 될 것 같아 뿌듯하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단장님을 비롯해 카리스마 넘치는 최민호 선생님, 해리포터 김진완 선생님, 단아한 한명숙 통역 선생님 네 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연수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을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다. 다시 한 번 재단측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소감을 대신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농부가 되기 위해 시나브로 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김장김치, 팔죽과 된장 말린 채소 _ 겨울철 우리 먹거리

“애야, 딸기가 먹고 싶구나.” 엄동설만에 딸기를 찾는 병든 어머니와 눈 속을 헤치고 딸기를 구해오는 아이의 이야기는 요임을 말할 때 많이 하는 옛날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음식은 겨울이면 월동에 들어가는 잉어에서부터 쪄어름에 쭉쭉 자라는 죽순까지 실로 다양하다. 요자들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고 하늘이 이에 감동해서 한겨울에 딸기나 죽순을 내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했다. 요즘엔 대형마트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니 옛 이야기대로 보자면, 요도하기 짐 쉬운 시대다. 린 날에 붉은 딸기가 열렸던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와 간편하게 데워주는 전자렌지가 없는 시절, 선조들은 아예를 신연하게 보관하여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음식으로 추위를 이기고 이웃이 화합하는 법을 알아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겨울철 음식을 걸기를 통해 들여다 본다.

글_박소현



임동-김장 담는 날

임동은 보통 양력으로 11월 8일경이다. 큰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겨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바로 김장 때문이다. 임동 전 후로 해야 제 맛이 난다는 김장은 임동이 지난 지 오래되면 야채가 얼어버리고 싱싱한 재료를 구하기 어렵고 추위에 일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많은 양을 이웃이 공동으로 작업 하진 않지만 김치냉장고가 있는 오늘날에도 임동전후엔 시장에 부·배추가 왕이고 그것을 사고파는 손길로 바쁘다.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 있고 익는 동안에 생김 유산이 잡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정장작용을 하는 김치는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음식이다.

김장김치는 배추, 부를 주재료로 하고 미나리, 갓, 마늘, 파, 생강 같은 향신미가 있는 채소를 부재료로 하여 소금, 전갈, 고춧가루로 간을 맞추어 시지 않도록 겨울내 잘 보관하여 두고 먹는 침채류의 하나이다. 김칫소의 기본재료는 부채 썬 것, 미나리, 갓, 파, 마늘, 생강, 전국, 소금, 고춧가루, 청각 등이고 표고버섯, 생굴, 조기전, 생새우, 생선살(생선, 낙지, 생태) 등을 넣기도 한다. 배추소를 넣으면서 배추의 노란 속잎을 한두 장씩 싸서 속대짬을 만든다. 김치 중 겨울에 담가 먹는 것은 쉬박지, 흥배추김치, 보쌈김치, 짬두기, 흥부김치, 배김치, 통치미, 총각김치, 호박지 등이다.



소설-무말랭이, 오거리 먹는 날

음력 10월, 양력으로 11월 22일경인 소설은 땅이 얼고 살얼음이 끼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겨울철 비타민 섭취를 위해 말린 부를 먹고 호박이나 박의 살을 길게 오려서 말린 오가리를 먹었다. 오가리는 가을에 누렇게 잘 익은 청동호박 또는 잘 익은 박의 겹질을 긁어내거나 벗기고, 속의 씨와 부른 살을 깨끗이 파낸다. 단 단한 살만 0.5-0.6cm 정도의 두께로 돌려가면서 썰어지지 않게 계속하여 길게 오려내는 것이다.

이것을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밑에 빨랫줄을 걸거나 장대를 가로질러놓고 널어둔다. 하루 이틀에 마르는 것이 아니므로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면서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널어둔다.

호박오거리로는 오거리 떡을 해서 딱기도 하는데 이것은 달고 맛이 좋으며 떡의 빛깔도 일품인 서민적인 떡이다. 잘 마른 호박오가리를 불에 볶리고 2-3cm의 길이로 썰어서 떡가루, 특히 찹쌀가루에 버무리고 시루에 쪄다. 가을은 달고 시원한 부가 많이 나올 때이므로 부를 굵게 채로 썰어서 같이 버무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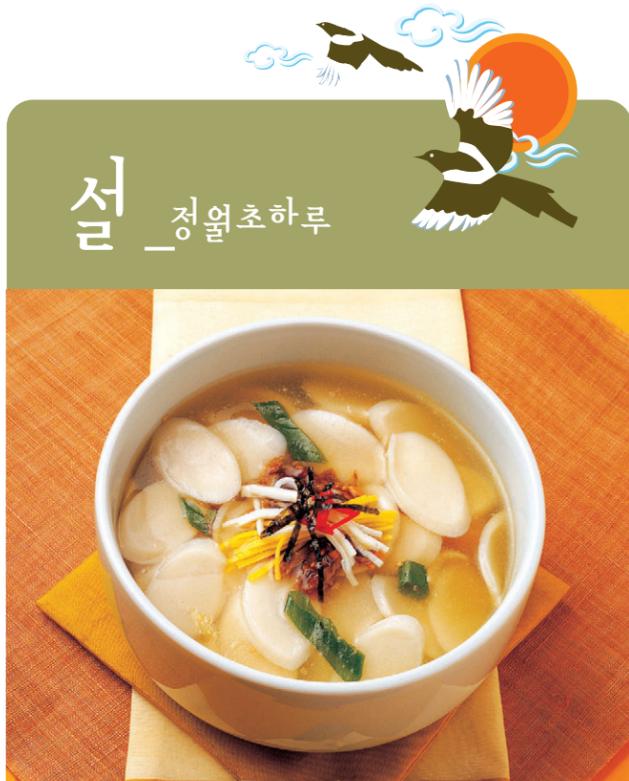
동지-팥죽 먹는 날

음력 11월, 양력 12월 22일경이다.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팥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團子)를 만들어 넣고 끓인 팥죽을 먹는다.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하기 때문에 '새알심'이라 부른다.



우수에서 음력 정월 말일 -풍은 날 받아 장 담그기

이사항 때, '날은 잡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흔히 '순 없는 날' 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장을 담글 때도 마찬가지다. 음력 정월 그믐이 좋다고 그 날 담그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음력 정월 3일이나 4일이 장 담그기 좋은 날이라는 곳도 있다. 이것은 아마 지방에 따라 적당한 날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에는 보통 우수에서 음력 정월 말일 사이에 하루를 잡아서 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많다. 장 담그는 날을 잡을 때, 음력 달력을 보면 날짜를 표시한 밑에 작게 한문으로 된 두 글자가 적힌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두 글자 중 신(申)자가 들어가면 장이 쉴 수 있으므로 신일(음력 9일), 신시(오후 4시)에는 절대로 장을 담그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신씨 성을 가진 집안에서는 딸네 집에 가서 장을 담가 왔다고 하니 장을 담그는 정성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반겨울 절기 중 제일은 역시 설이다. 우리나라 설은 기원 후 488년인 신라 비천왕 때부터 쇠 온 것으로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다. 이후 1895년 을미개혁 이후 민족문화 말살책의 일환으로 설이 사라졌으며 그 후 일제강점기 36년간 양력 1월 1일에 설을 쇠도록 강요받았다. 광복 이후에도 신정을 쇠라는 강요가 계속됐지만 전국의 가구 80% 이상이 음력 설을 쇠어 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요즘엔 설 연휴를 이용하여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해 많이 간소화된 추세지만 다른 나라 축제와 구분되는 우리나라만의 특색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 설은 가족과 친지가 모이고 이웃 간에 베풀고 나누는 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때 먹는 음식으로는 떡, 전, 고기구이, 과일, 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가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떡국이다.

가래떡을 납작 납작하게 썰어서 육수에 넣고 끓인 떡국은 설날이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만큼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흰 떡을 끓여 먹는 데서 유래했다. 개성지방의 경우 '조랭이 떡국'을 만들어 먹었다. '조랭이 떡국'은 가래떡을 대나무 칼로 동글동글하게 썬 후 다시 가운데를 대나무 칼로 문질러 조롱박 모양으로 오목하게 만든 '조랭이 떡' 과 만두를 넣고 만든 떡국이다. 조랭이 떡은 조롱박과 누에가 가지고 있는 악귀를 쫓는 의미와 길함을 동시에 상징한다.

설날 먹는 떡국은 첨세병(添歲餅)이라 하여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한데 떡국을 만드는 떡을 길게 뽑는 이유는 새해 아침 긴 음식을 먹어 장수하라는 뜻에서다. 지역별로 떡국 위에 계란지단이나 김, 꿩고기 같은 고품을 얹는 곳도 있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2007년 하반기
주요 사업 실적 및 재단 소식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농어촌 청소년들이 세계관을 넓히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건전하고 균형적 사회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 목적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

□ 하반기 실적

- 하반기 장학금 지급 인원 : 재단 계속장학생 86명
- 지급 범위 : 등록금 전액
- 장학생 자치회 및 교류회, 봉사활동 등 개최



수련사업



□ 목적

농어촌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욕구 충족과 잠재능력 개발, 현장 학습을 통한 전문 확대와 공동체 의식 함양

□ 하반기 실적

* 소원성취프로그램

- 응모결과 : 농어촌지역 207개 학교 응모 19개 학교 선정
- 지원금액 : 총 9천여만 원

* 농어촌청소년문예제전

- 문예장학금 지급 : 기시행된 문예제전 대상 수상자 하반기 문예장학금 지급
- 지급 금액 : 대학교 100만 원, 고등학교 40만 원
- 제7회 전국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
- 출품작품수 : 1,242편(시, 수필, 소설)
- 시상식개최 : 2007. 10. 29 서울 올림픽파크텔 (입상작 59편)
- 수상 작품집 발간 및 배포

* 금강산통일수련대회

- 기간 : 2007. 10. 2~5
- 대상 :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1년생 32명
- 장소 : 서울 및 금강산 관광단지
- 주요내용 : 통일교육, 현장견학, 참가자간 교류활동 등



♣ 문화교류활동



□ 목적
농어촌청소년에게 해외 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세계화 시대에 건문화대 및 능동적 대응 능력 배양

□ 하반기 실적

- * 한중 청소년교류활동(방중)
 - 기간: 2007. 8. 16~24
 - 교류대상단체: 중국 송경령기금회
 - 참가학교: 중국 지성중학교, 충북 음성 대소중학교
 - 주요 내용
 - 상대국 주요 역사문화유적 탐방
 - 현지 교류학교 방문 및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 상대국 생활문화 체험(민박) 등
- * 한민족 해외(고구려) 문화권 탐방활동
 - 기간: 2007. 7. 28~8. 4
 - 장소: 중국내 고구려 역사유적지
 - 참가인원/대상: 농어촌청소년 30명
 - 주요 내용
 - 고구려 역사· 문화유적탐사
 - 백두산 등정, 압록강 및 두만강 체험
 - 독립운동 역사지역탐방
 - 참가자간 교류활동 등

♣ 농어촌활동(연수)



□ 목적
영농청소년의 선진농업 문화 체험을 통한 영농의지 제고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기여



□ 하반기 실적

- * 영농청소년 일본연수
 - 기간: 2007. 6. 28 ~ 7. 6
 - 장소: 후쿠시마현 미하루쵸, 도쿄
 - 참가대상 및 인원: 29세 이하 영농청소년 20여명
 - 연수내용
 - 현지 농가 민박 및 실습
 - 한일 참가자간 교류
 - 선진 농촌사회 체험 및 농업관련 시설 견학
 - 농업 관련 교육 및 강의

- * 청소년 낙농체험
 - 기간: 2007. 10. 22~23
 - 대상·인원: 경기 연천 전곡초등학교 34명
 - 주요내용
 - 목장체험 및 유제품 만들기
 - 참가자간 교류활동 및 농촌바로알기 등 교육활동

♣ 청소년가장 자립지원사업

□ 목적

청소년가장의 자립기반 마련 및 올바른 성장에 기여

□ 하반기 실적

- * 하반기 자립지원금 지급
 - 대상/지급 시기: 재단 소속 청소년가장 59명 대상 11월말 지급
- * 계기별 축하 및 격려품 전달
 - 3/4분기 생일 축하 및 명절 격려품 전달

♣ 연구개발사업

□ 목적

신규 사업의 개발 시행으로 사업영역 확장 및 효율성 제고, 농어촌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실질적 복지증진 방안 모색

□ 하반기 실적

- * 농어촌청소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 연구용역 수행기관: (사)한국청소년학회
 - 주요 연구내용
 - 농어촌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실태조사
 - 농어촌지역 청소년 인프라 및 여건조사
 - 농어촌청소년의 문화여가 및 청소년활동참여 실태조사
 - 농어촌청소년 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 등

- * 청년 CEO 프로그램 2단계 시행
 - 대상 인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2학년 14명
 - 참여 방법: 2007년 상반기에 실시된 청년 CEO 1단계 국내 연수 이수자중 선발
 - 기간: 2007. 9. 8~16
 - 장소: 유럽 선진농가 및 농업관련 교육기관
 - 주요내용
 - 청년농업CEO의 체험사례·비전, 농업전문가 강의, 농업 교육기관 견학 등

- *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실
 - 운영 방법
 - 지역내 사회단체를 선정하여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토록 함

- 운영 단체 선정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예술 체험 환경이 열악한 벽·오지 및 도서벽지 농어촌지역내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재단 심사
- 단체선정 및 지원 실적
 - 4개 단체 응모, 3개 단체 현장답사, 2개 단체(현정지역아동센터, 민들레 세상 지역아동센터) 선정
 - 지원내용: 단체당 1천만 원 지원

♣ 2007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대학탐방활동

□ 목적

농어촌지역 청소년에게 관심분야 대학탐방을 통해 건문화대와 진학·진로선택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제공

- 기간: 2007. 11. 15~17
- 장소: 수도권내 대학
- 선발방법: 도교육청 추천
- 인 원: 33명
 - 고 교 생: 24명(충북지역 고교 2학년생)
 - 대 학생: 9명(재단 대학장학생)
- 주요 활동내용
 - 수도권 소재 대학탐방 (강의수강, 관심분야 체험, 캠퍼스 견학 등)
 - 그룹별 체험담 교환, 선배와의 대화시간 등
 - 문화탐방 및 친목교류활동

♣ 농어촌청소년 참여회의 운영 및 수혜자 자치회 운영



□ 목적

농어촌청소년 참여회의 및 재단 수혜자 자치회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한 현장 중심 사업개발 및 수혜자 저변 확대

* 농어촌청소년 참여회의

- 구성: 농어촌지역 청소년 15~29세 30명 내외
- 활동방향: 참여위원의 재단 사업 참가·평가로 청소년 눈높이 사업추진 및 육구 충족 사업 추진
- 하반기 실적
 - 제3기 농어촌청소년참여회의 제1차 정기총회
 - 일시/장소: 2007. 8. 25~26 / 전주시, 전북 진안군
 - 활동내용: 제3기 참여회의 향후 활동계획수립,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참여회의 제안 사업(2007 보여줘 yo! 대학 in!) 참가



- * 대학 장학생 자치회 (Withus)교류회
 - 대 상: 2008년 졸업예정자 및 일반 장학생 등 40여명
 - 기간/장소: 2007. 8. 22~23 / 충주호 월악산 유스호텔
 - 내 용
 - 정보교환(취업, 진학 등), 단체봉사활동 및 체육행사, 자치회 구성 등
- * 늘푸름 자치회 정기총회(해외 농업연수 참가자 모임)
 - 기간: 2007. 8. 6~7
 - 장소: 서울 강서구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 참가인원: 20여명
 - 내용
 - 회장단 선출, 늘푸름회 활성화 방안, 재단 수혜자 단체와 연계 등

♣ 재단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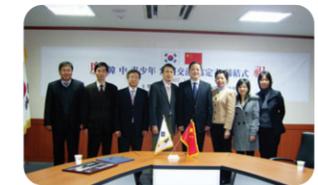
- * 2007년 정기 이사회 개최
 - 일시: 2007. 12. 27
 - 주요내용: '07년 예산안 및 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 등 논의
- * 2007년 하반기 임원 간담회 개최
 - 일시: 2007. 11. 27
 - 주요내용: 신입 임원 상견례, 재단 운영 방향 논의

□ 제5대 서학봉 사무총장 취임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제5대 사무총장으로 서학봉 사무총장이 지난 11월 1일 취임했다. 서학봉 사무총장은 전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근무와 국가 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담당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국가기관에서 청소년 행정업무를 담당했으며, 전임 박성자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임원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우리 재단의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 중국 송경령기금회 방문, 정기교류 협정 체결



재단의 국가간 청소년 교류 사업 협력단체인 중국 송경령기금회 인사들이 11. 26~12. 1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중 중국 송경령기금회는 재단 주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면담 및 청소년단체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한국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두 단체간 한중 청소년 정기교류 협정서 체결을 통해 양국 청소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농어촌청소년의 미래성장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역할에 전력

-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특화사업 확대·지원
-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 가치와 문화 이해하는 청소년 육성에 주력
- 농어촌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 및 농어촌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재단은 설립 15년을 앞두고 2008년 한해는 그간 진행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청소년의 '미래 성장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 라는 비전 아래 재단의 발전적 변화를 통해 농어촌청소년을 지원하는 최고의 공익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첫째**, 고객 욕구에 부응하는 특화사업을 확대·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지역특성과 현장 중심 사업 지원으로 지역학교 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의 자기 계발에 기여코자 농어촌청소년 소원성취 프로그램과 농어촌청소년 문화예술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청소년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청소년들의 교류활동을 주관하고 농어촌지역 거주 다문화청소년 및 가족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한국 문화 체험 활동 사업을 새로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하도록 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에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자연 순환의 원리와 생명의 파스함을 일깨움으로써 인성 및 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는 청소년 눈

높이 우주 체험 프로그램인 청소년낙농체험, 직업 및 진로 선택의 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 CEO 육성, 대학탐방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단이 그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는 문화교류 및 선진 영농활동 프로그램의 지속적 시행으로 세계화 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청소년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어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인재 양성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전개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청소년가장 자립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져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설립 15년을 앞두고 있는 재단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육마련과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 농어촌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촌청소년 육성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수혜자의 욕구와 현실이 반영된 사업 시행, 수혜자 사후관리 강화, 홈페이지 사보 등의 홍보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확고한 지지기반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2008년 한해에는 농어촌청소년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8년 사업추진도 >



문화체험 3·1운동

- ◆ 소원성취 프로그램 지원 (30여개교)
- ◆ 문화예술교실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단체)
- ◆ 제 8회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
- ◆ 타문화이해활동: 3회 (통일수련대회, 도·농교류,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

장학사업

- ◆ 어려운 농어촌가계 지원 및 인재양성
- ◆ 대학졸업예정자 교류회
- ◆ (단체, 개인) 봉사활동

VISON

농어촌청소년 미래성장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

FUBU 사업

- ◆ 청소년 낙농체험
- ◆ 청년CEO육성(직업선택)
- ◆ 대학탐방활동(진로선택)

자립지원사업

- ◆ 청소년가장자립지원
- ◆ 계기별 격려(축하)메시지 및 선물전달

문화교류·선진영농활동

- ◆ 문화교류활동 : 4회
 - 국가간교류(중국,일본)
 - 한민족문화권 탐방활동
- ◆ 농어촌활동 : 2회
 - 선진영농연수(유럽)
 - 영농체험연수(일본)

FRY회원 통합관리

- 수혜자 워크숍
- Withus 회원 관리
- 늘푸름 회원 관리
- 참여회의 운영

연구용역사업

- 농어촌청소년 복지증진 프로그램개발

홍보지원

- 홍보물 발간
- 홈페이지 관리
- 인트라넷 관리

대체투자·수익사업 개발추진을 통한 조직 활성화

‘우왕꺼꺼’

도대체 뭘 말이지?

10대 청소년들이 즐겨쓰는 알쏭달쏭 ‘신조어’

‘지대’, ‘출척’, ‘므훗’ 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단어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들이다. ‘지대’는 ‘제대로’, ‘출척’은 ‘출석체크’, ‘므훗’은 ‘흡족한 상태’를 뜻한다. 그렇다면 ‘우왕꺼꺼’라는 표현은 어떤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글자로 가득한 이 문장을 읽고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힌다면 요즘 신세대의 코드를 이해한다고 하겠다. 암호 같은 글자를 해석하면 ‘아주 좋다’라는 뜻이다.

2007 최고 인기어는 ‘우왕꺼꺼’

최근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가 누리꾼 6,730명을 대상으로 (2007년 최고의 인기 인터넷 용어)를 주제로 설문을 벌였다. 그 결과, 앞서 소개한 ‘우왕꺼꺼’가 44.9% (3,021표)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발음하기조차 애매한 이 통신언어는 신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디시인사이드의 카툰 갤러리에 연재한 만화에 처음 등장한 이후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고, 올해 최고의 신조어로 등극했다. 실제 포털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우왕꺼꺼’이라는 댓글을 다는 누리꾼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패러디물도 나오고 있다.

2위는 9.2%(621표)의 지지를 얻은 ‘킹왕짱’이 차지했다. ‘최고다’, ‘대단하다’의 뜻인 ‘킹왕짱’은 누리꾼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좋다’, ‘끝내준다’는 의미로 ‘왕’이나 ‘짱’이라는 한 글자 짜리 통신언어를 쓰던 네티즌들이 강조 의미를 더 주기 위해 이제 영어 킹(king)까지 가세시킨 것이다. 3위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줄임말인 ‘듣보잡’이 8.8%(591표)로 차지했다. 들어보거나 본 적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밖에 ‘막장(갈 때까지 간 인생)’, ‘안습(안구에 습기차다의 준말-눈물이 난다)’, ‘고고씽(어서 가자)’, ‘하악(흥분했을 때 쓰는 부사)’, ‘지뭇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 ‘흠좀무(흠좀 무섭군요의 준말)’ 등이 인기 인터넷 용어로 꼽혔다.

신조어는 청소년들의 문화코드를 반영

기성세대인 어른들 대부분이 그 의미조차 이해하기가 힘든 정체불명의 이 신조어들은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는 언어들이다. 이러한 신조어의 출현은 인터넷 통신이 활성화되고 문자언어가 다양해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로 청소년들이 채팅, 게임 그리고 블로그와 흡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점차 크게 확산됐다.

신조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맞춤법이나 일상 언어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일정한 사람들과 함께 쓰여 지게 된 유행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한 예로 몇 년 전 인터넷상에서 크게 유행한 ‘아햏햏(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표현하는 감탄사)’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ㅇ’을 써야 할 자리에 ‘햏’을 대신 사용하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국어의 맞춤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발음하기조차 어려웠지만 이후에도 암호같은 통신언어들은 계속 양성되었다.

이처럼 10대들에게서 유행하는 신조어와 통신언어들은 신세대의 문화코드를 그대로 반영한다. ‘인터넷 언어’ 혹은 ‘통신어’라는 이름을 단 신조어는 주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청소년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다.

언어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통신언어로 대표되는 신조어의 출현도 마찬가지이다. 신조어는 청소년들이 가장 받아들이거나 참여하기 쉬운 언어가 되었고 인터넷, 문자 등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다. 그로 인해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의사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어쩌면 머지않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원활하게 대화하려면 유행하는 신조어 몇 개는 암기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 2007년 인터넷 최고 인기어 순위 >



개성만점

아! 이런 직업도 있었네!



이벤트플래너, 슝마스터, 푸드스타일리스트, 파티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언뜻 이름만 들어서는 알 듯 말 듯한 이 직업들은 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색 직업들이다. 뭔가 남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색 직업의 세계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 나에게 맞는 직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 컬러 코디네이터

유행 색을 예상하고 이를 패션에 직접 적용, 정확한 색을 뽑아내는 일을 한다. 원단 업체와 염색 업체 사이에서 원하는 색깔이 다를 때 컬러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한데, 양 업체에서 제시한 색깔이 정확히 표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조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단이 발주되고 재단 작업에 들어간다. 의상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옷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다. 특히 색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고 유행을 앞서갈 수 있는 패션 감각을 지니고 있으면 유리하므로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하면 좋다.

|||| 물고기 질병 치료사

물고기 질병 치료사라면 무척 생소할 것이다. 간혹 동물 병원의 수의사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작은 어항 속의 물고기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만큼 생소하고 이색적인 직업이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생물학·화학·세균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물고기의 고통을 치료해 준다면 물고기가 얼마나 고마워할까.

|||| 번지 마스터

점프 마스터(Jump Master)라고도 불리는 번지 마스터는 일반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할 때 간단한 안전 교육과 점프의 진행에 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번지 장비에 대한 안전 검사와 안전한 점프를 위한 전문가이다. 그래서 번지점프에 관한 전문 교육을 최소한 1개월 이상 받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 음악 치료사

음악 치료사는 음악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치료하는 사람을 말한다. 환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음악을 선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는 것이 음악 치료사의 역할이다. 개인 및 집단으로 치료를 하는데, 음악 선택이나 치료법은 환자의 증상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뒤 음악 치료사 전문 과정을 거치면 된다.

|||| 푸드 스타일리스트

아무리 요리를 잘 만든다고 해도 그 요리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때 요리를 코디해주는 사람을 바로 푸드스타일리스트라고 한다. 요리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버린 요즘,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요리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색채에 대한 감각,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간감, 그리고 그 매체를 보는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한 안목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이다.

|||| 복권 디자이너

행운을 만들어 내는 복권 디자인의 생명은 아이디어에 있다. 외국 복권 견본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인터넷과 백과사전까지도 참조해야 한다. 한 가지 소재를 찾아 복권을 디자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잡아 한 달이 걸린다. 복권의 크기는 지폐보다 조금 작은 9x5.5cm 이 작은 공간에 디자이너들은 행운이 구매자에게 다가올 것만 같은 디자인과 행운의 숫자, 상금액 등을 담아야 한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제7회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 수상작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농어촌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문예소질자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 『전국 농어촌 청소년 문예제전』을 올해로 7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7회 『전국 농어촌 청소년 문예제전』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 총 1,24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그 중에서 59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고등부 대상에는 김윤명(기장고 3학년), 중등부 대상에는 김주호(부안여중 2학년), 초등부 대상에는 유지우(부안동초 6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문예제전은 시·수필·소설 부문으로 나뉘 민족문학작가 회의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했다.



김윤명, 부산 기장고등학교 3학년

| 고등부 대상 | 수필

비밀번호

숨결이 거칠었다. 땀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발을 내딛을 때마다 살이 출렁거렸다. 나는 작은 키에 향아리 몸매였다. 그래서 여름 방학을 계기로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 나는 살을 빼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해가 조금씩 서산으로 기울 때 출렁거리는 살을 이끌며 뛰고 있던 내 발걸음이 조금씩 힘을 잃어갔다. 나는 스탠드에 앉아서 조금 쉬기로 했다. 숨을 고르고 있던 나는 조례대 아래 있는 체육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고양이 세 마리를 발견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다가갔다. 체육창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얼굴을 창문에 가까이 댔다. 고양이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여기저기 훑어져 있는 체육 기구들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쉬는 동안 사라져 버렸던 땀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체육창고를 지나 칠 때마다 작은 창문으로 시선이 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고양이들은 그 곳에 갇혀 있었다. ‘저러다 죽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체육창고에 갇혀 있는 고양이들의 모습이 꼭 학교에 갇혀 지내는 내 모습 같았다.

내가 학교라는 곳에 왜 가게 된 건지 솔직히 잘 모른다. 여덟 살 때 엄마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간 기억뿐이다. 그때부터 나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게 놀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친구들과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게 놀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곳에선 일등부터 꼴등까지 번호를 매겨 우리를 평가했다. 나는 꼴등에 속해 있었다. 일등을 하는 친구들이 꽃을 피우면 선생님들은 자상하게 물을 주었고, 꼴등을 하는 친구들에게서 돌아온 풀은 잡초라며 짓밟았다. 그때부터 나는 학교라는 곳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체크무늬 치마에 하얀색 와이셔츠의 죄수복을 입었다. 선생님들은 간수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와 친구들을 위 아래로 훑어보았다. 초등학교 때 느꼈던 행복은 손톱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서로를 밟고 승리해야 한다는 더럽고 비열한 인생을 배웠다. 그들은 의사, 판사, 선생님 같은 멋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한 아이가 가진 환경미화원이라는 꿈은 쓰레기 같은 것이라며 나무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멋진 꿈은 뭐가요? 가장 멋진 직업은 또 뭐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인가요?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큰 꿈이 아닐까요? 왜 환경미화라는 꿈이 쓰레기 같은 꿈인가요? 환경미화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존재 하지 않겠죠’ 하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목구멍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주먹을 쥐고 있는 내 손이 떨렸다. 그들은 바보였다. 하지만 바보는 그들이 아니라 나였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난 매일 체크무늬치마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학교라는 감옥으로 갔다.

어느 날 선생님들의 보살핌을 받는 A와 선생님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B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A가 평소B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너, 왜 내 다리를 거니?”

B가 A에게 말했다. A는 무슨 말이나는 듯 양손을 들면서 어깨를 들썩거렸다. A가 친구들과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번엔 B가 A의 다리를 걸었다. A는 바닥에 너부러졌다.

“너 죽고 싶어?”

A가 B의 머리채를 잡았다.

“왜 매일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혀. 더 이상 나도 못 참아.”

B도 A의 머리채를 잡았다. A와 B는 교실 뒤에서 서로 머리를 잡아당겼다. 반장이 선생님을 불러왔고, 둘은 교무실로 불러갔다. 선생님들은 B에게만 야단을 쳤다. B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공부를 못하면 사람도

아닌가요? 왜 항상 나를 짓밟기만 하는 거죠?” 친구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아파서 미칠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선생님들은 도도했다. 팔짱을 끼고 재미있는 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웃었다. 그날 밤 친구는 바람에 몸을 맡겨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갔다. 친구가 없는 학교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체크무늬치마와 흰색 와이셔츠가 입기 싫었다. 나도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죽게 될까봐 불안했다.

나는 체육창고로 갔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고양이는 아직도 갇혀 있었다. 내가 처음 고양이를 봤을 때와는 다르게 많이 아위어 보였다. 삼오삼오, 이칠공삼, 육사오사 나는 아무번호나 미친 듯이 눌렀다. 비밀번호는 일치 하지 않았다. 양쪽 불에 비가 내렸다.

“일치 하지 않습니다” 경고음이 들려왔다. 나는 다시 한 번 숫자를 눌렀다. “일치 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경고음이 들려왔다. 한 번 더 눌렀을 때 비밀번호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는 문을 열 수 없었다. 선뜻 번호를 눌러볼 수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 곳에서 짓밟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깊고 어두운 곳에 갇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을 숫자판 위에 갖다 대고 다시 한 번 숫자를 눌렀다. 입안은 말라갔고,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제발, 이번에는 맞기를……’ 마음 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일치 하지 않습니다”라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선생님들의 손에 끌려가고 있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고양이가 그 곳에서 나왔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학교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선생님들에게 짓밟혀 멍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일치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만 맴돌았다.

| 중등부 대상 | 시

할아버지의 손

김주호_ 전북 부안여자중학교 2학년

묵직하게 썩진 손 바닥이 보인다

금방이라도 살갓이 떨어져 나갈듯한

손 바닥 위에 연탄을 옮기다 온 흔적,

오래된 장판 같은 손

숯 껌땀이 묻어 있다.

다 닳은 옷처럼, 목 마른 땅처럼

살아 있는 동안 얼마나 고되었을까

손은 소리 없이 온다.

오래고목 나무 줄기처럼 짹짹 갈라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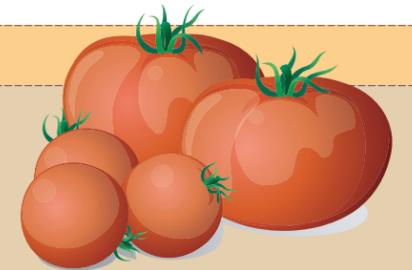
덤불숲이 생의 고통을 더욱

실감나게 해준다.



| 초등부 최우수상 | 수필

땅 이야기



유지우_ 전북 부안동초등학교 6학년

나는 혜승이네 밭이다.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곳에서의 유일한 친구는 지렁이와 쑥쑥 자라는 토마토뿐이다. 지렁이는 정말 좋은 친구다. 구멍을 뚫어서 내가 숨을 쉬게 해준다. 그 구멍으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되고 싶다. 지나가는 새도 품고 비행기도 품을 수 있을 텐데.

혜승이네 동네에 사는 털이 누런 통개 개똥이가 내게로 와 오줌을 갈긴다. 저 녀석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오늘따라 오줌발이 길다. 토마토들은 개똥이의 오줌을 꿀꺽꿀꺽 마신다. 비가 와서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토마토랑 놀면 안 되겠다.

지렁이는 입으로 흙을 먹고 입으로 토해낸다. 지렁이가 토한 것은 나에게서 영양주사나 다름없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짹짹 내리는 비에 나는 오랜만에 머리를 감았다. 정말 개운했다. 그 후에 바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은 숨쉬기가 정말 힘들었다. 눈을 떠 보았다. 으악! 비가 너무 내려서 군데군데 물이 고였다. 나의 소중한 친구인 지렁이들이 모두 죽었다. 비가 정말 원망스러웠다. 원수처럼 여겨졌다. 이런 내 맘을 아는지 비는 계속 퍼부어댔다.

내 옆의 지우네 논은 괜찮았다. 지우는 항상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다. 비와 논은 참 친했다. 그 둘은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 일주일만 지나자 다시 흙에 물기가 사라졌다. 그러자, 내 소중한 지렁이들이 다시 돌아왔다. 정말 기뻐다. 지렁이는 숨구멍을 다시 뚫어주었다. 막혔던 내 마음이 뻥 뚫렸다.

토마토도 빨갭게 익었다. 언제부터인가 해충이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다. 토마토는 해충에게 꼼짝할 수 없었다. 고스란히 제 몸을 내주기만 할 뿐. 나는 토마토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다시 해충들이 나타나자 나는 몸을 흔들었다. 해충들이 떨어졌다. 한밤중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해충들을 본 지우네 아빠가 농약을 뿌렸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토마토가 괴로워했다. 나도 괴로웠다. 토마토의 뿌리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어느샌가 나도 속이 따끔거렸다. 지우네 아빠가 뿌린 농약 때문이다. 지렁이도 농약을 먹고 죽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환자처럼 눈이 뒤집혔다. 토마토도 시들어갔다.

며칠이 지나자 내 주인이 바뀌었다. 슬미네가 땅을 샀다. 슬미네 아빠가 영양제를 주었다. 나는 예전처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내 주변의 땅을 더 사서 감자, 고구마, 가지를 심어주었다. 나는 친구가 많아져서 좋았다.

